진실을 경험하라 -밀레
MILLET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797호 1판 (음력 7월 10일) 2014년 8월 5일 화요일

우암학원 창학64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 물꼬 튼 '화합의 정치'…이젠 TK가 보여줄때

비 내리는 캠퍼스의 오후 태풍 '나크리'(NAKRI)의 영향으로 나흘째 비가 내린 가운데 4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교정에서 우산을 쓴 여대생들이 교정을 거닐고 있다. 나크리는 3일 오후 소멸한 가운데 4일 광주·전남지역에는 곳에 따라 5～40mm의 비가 내렸다. /김진수기자 jeans@

'이정현 효과' 정치권 흔든다

㊤ 다바꿔라 새정치연합
㊥ 응답하라 박근혜정부
㊦ 반응하라 TK·PK

## 변화 기대한 호남의 선택
## 영남 '선거혁명'으로 화답
## 지역주의 찌든 정치 끝내자

7·30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당선되자 온 국민의 눈길이 영남으로 향하고 있다.

호남에서 촉발된 지역주의 타파에 대해 영남 특히 대구·경북(TK)이 응답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사실 순천·곡성의 이변에 대해 모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지역구도 타파'라는 커다란 명분에도 불구, 박근혜정부의 '호남 무시' 등 과오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심지어는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호남은 혹독한 인사 차별과 예산 차별을 겪어왔다. 근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완화하기는커녕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이를테면 '호남 무시' 전략이 일반화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농림부장관은 무조건 호남 몫이었다. 중요한 장관 자리는 주기 아까우니 그나마 주는 선물 정도로 치부했다는 게 호남 공직자들의 판단이었다. 그리고 호남 출신의 대통령 측근이나 탁월한 인물이 보이면 몇몇 자리를 더 내어주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농림부장관마저 영남 몫이 되고 있다. '없는 자식 취급당하고 있다'는 자조감이 호남인들 사이에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남의 지역주의는 패권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는데 반해 호남의 지역주의는 저항적 성격이다는 게 정치학자들의 일반적 분석이다.

영남지역이 자기 지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뭉친 것이라면 호남은 이에 대한 저항이고 나아가 반민주·반민족 등에 대한 저항적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마지막 중선거구제로 치러진 지난 1985년 12대 총선 이래 호남에서는 단 한 명의 보수정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호남은 '박근혜의 남자 이정현'을 선택했다. 당장 '미움'보다는 미래의 보답과 화합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호남인은 이번 재보선을 통해 우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화답을 기다리고 있으며 나아가 영남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지역정치권의 분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관계자는 4일 "박근혜정부에 대한 요구가 기존 호남 차별전략에 대한 반성과 변화라면 영남에는 지역구도 타파에 동참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도 "전남이 더 이상 새정치연합의 독점적 전유물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유권자들이 선거독립을 선언한 것"이라며 "영남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촉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남 정치권에서는 대구·경북(TK)을 눈여겨 보고 있다. 호남출신 인구비율이 높은 탓이라고는 하지만 부산에서는 조경태, 문재인 의원이라는 야당 의원을 배출한 데 반해 대구·경북에서는 현 야당 국회의원이 지난 1985년 이후 단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남의 '이정현'에 버금가는 '김부겸'이 대구에 있다는 점도 기대를 모으는 이유로 보인다. "대구의 아들이 되겠다"는 김부겸 전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야당후보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40.4%를, 지난 6월 대구시장선거에 출마해 40.3%를 득표하며 '이정현 이변'을 멀리서 예고했다. 그는 20대 총선에서도 대구 출마를 공언했다.

김 전 의원은 당이 재보선에 패배한 지난 30일 밤 "당의 완패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할 말이 없다"면서도 "이정현 후보의 당선은 지역주의에 찌든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엄청난 대사건이며 이정현 당선자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하며 기대를 표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실용음악학과 정기공연"
일시: 10월 6일(월) 오후 7시30분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신대학교 062)605-0956

알립니다

## "부자되세요"

### 광주일보·선대인경제연구소 재테크 특강

잘못된 재테크 정보 때문에 재산을 불리기는커녕 있는 돈도 까먹지는 않으셨습니까?

광주일보와 선대인경제연구소가 함께 준비한 '재테크정보의 허실'특강은 최근 서울에서 뜨거운 호평 속에 진행된 명강연입니다.

검증된 재테크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이번 특강은 잘못된 재테크 정보를 걸러내고,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과 함께 가계 경제의 시름을 더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대인 소장

정남수 팀장

심영철 대표

윤석천 칼럼니스트

■ 강사진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국내 가계 자산구조 분석 통한 내 집 마련'
-정남수 선대인경제연구소 자산시장팀장 '보험과 저축, 연금활용법'
-심영철 웰시안닷컴 대표 '주식과 펀드, 채권 투자의 건강한 접근법'
-윤석천 경제칼럼니스트 '거시경제 흐름에 따른 외환 및 상품투자'
■ 일시 : 8월 23일(토) 오후 1시 ～ 7시
(점심·저녁은 제공되지 않으며, 간단한 음료와 다과를 마련했습니다)
■ 장소 : 광주시 동구 서석동 KT광주타워 3층 세미나실
(광주 동구청 뒤편. KT광주타워 건물 지하 무료 주차가능)
■ 모집인원 : 150명 선착순 모집
■ 수강료 : 9만원(강연슬라이드 제공)
■ 수강신청 방법
1. 선대인경제연구소 홈페이지(www.sdinomics.com) 신청 후 바로 결제
2.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신청 가능
문의 070-7561-7139 또는 webmaster@sdinomics.com

光州日報社

## 새정치 비대위원장에 박영선…당 혁신 주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위기의 당을 수습하고 혁신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인됐다. 〈관련기사 4면〉

새정치연합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7·30 재보선 참패로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당을 이끌어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인선 문제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일부터 당 상임고문과 중진의원, 재선의원, 초선의원,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의장단, 시·도당위원장 등과 비상회의를 열고 비대위의 성격과 구성 방식 등을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결국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박 원내대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주어진 엄중한 책임을 피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우리 모두가 무당무사(당이 없으면 내가 없다)의 정신으로 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은 5일 오전 중에 기자회견을 하고 비대위 구성과 당 혁신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